



‘이야기 할머니’ 유영희·향희씨가 지난 27일 광주시 북구 문정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호랑이를 물리친 강감찬 장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옛이야기 보따리 풀었더니 아이들 귀 쫑긋 “재밌어요”

‘이야기 할머니’로 인성 2막 유영희·향희씨 자매

전문교육 후 매주 유치원 3곳서 이야기 선물 “인성교육 도움 즐겁고 뿌듯”... 광주 80명 활동

어린 시절 할머니의 무릎을 베고 들었던 이야기는 아직도 잊지 않는다. 할머니의 이야기 보따리에서는 매년 신기하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폭신한 무릎과 따뜻한 손길에 어느새 스스로 잠이 들기도 했지만.

지난 27일 광주시 북구 문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계림한복을 급게 차려입은 유영희(70·향희(60)씨 자매가 유치원에 들어서자 아이들이 뛰어나와 치맛자락을 붙잡으며 “와! 이야기 할머니다!”라고 외쳤다.

유영희씨는 이 유치원에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인기 짱-이야기 할머니’로 통한다. 그의 옛 이야기는 우리 전통 인사법인 ‘공수(拱手) 인사’로 시작했다. 유씨와 아이들은 두 손을 가지런하게 모으고 서로에게 고개를 숙였다.

“어린이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오늘은 이 할머니가 ‘호랑이를 물리친 강감찬 장군’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아예요, 기대되죠?”

아이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해졌다. 강감찬이 호랑이를 물리치는

부분이 나오자 손뼉을 치며 즐거워하기도 했다.

“어때요? 여러분도 강감찬 장군처럼 책을 많이 읽고 운동도 많이 해야겠죠? 남도 배려해야 하구요. 그러면 친구들도 슬기로운 사람이 될 거예요.”

유영희씨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진행중인 ‘이야기 할머니’ 사업에 지원해 지난해부터 매주 3곳의 유치원에서 손자 같은 아이들에 지혜가 담긴 옛날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올해는 문정초 병설유치원 등 3곳을 맡아서 하고 있다.

“지난해 광주에서 처음 시작된다는 소리를 듣고 지원했어요. 당시 어린 시절 증조할아버지·할머니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었던 추억과 아버지가 불러 주시던 노래들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이 자라 할머니가 되면 손자·손녀들에게도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으면 해요.”

자신의 시간을 쪼개서 하는 일이지만 유영희씨가 얻는 보람은 그 이상이다. 지난해 수업에서는 말 한 마디 못하던 발달장애 아이가 수업 막바지에 다다라서는 질

문도 하고 대답도 하는 모습에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글썽였다.

동생 유향희씨도 언니의 말을 듣고 올해부터 이야기 할머니가 됐다. 2.8대 1이라는 경쟁률을 뚫은 뒤에도 6개월 동안 교육을 받았다. 유향희씨는 본격적으로 아이들 앞에 서기 전에 동영상 보고, 또 언니에게 조언을 구하면서 공부했다. 세 살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이야기를 들려주며 경험을 쌓았다.

“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벌써 아이들과 만나는 시간이 기다려져요. 아이들의 눈빛이 너무 좋아요. 아이들은 무엇이든지 빠르게 흡수합니다. 내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아이들의 인성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 더 즐겁죠.”

두 자매가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한해 30여 편. 한국국학진흥원에서 공모·수집한 이야기들이다.

“일년 동안 아이들에게 30가지 추억을 선물하는 셈이죠. 아이들이 한 두 가지만 기억해줘도 좋아요. 저는 더 큰 추억을 얻어간다고요. 부모와 선생님의 사랑도 있지만, 할머니들의 사랑이 더 따뜻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광주지역에서는 모두 80여 명의 ‘이야기 할머니’가 매주 240여 곳의 유치원에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문의 한국국학진흥원 054-851-0758.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J프로젝트 삼포지구, 중국자본 유치 결국 무산

2500억 투자 취소... 道, 국내 투자자 모집 주력

서남해안 관광레저형기업도시(일명 J프로젝트) 중 영암 F1 경주장 일대에 들어서게 되는 삼포지구(241만 5000㎡)에 25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던 중국 기업이 사업계획을 철회했다.

지난 2003년 시작된 J프로젝트는 삼호·구성·삼포·부동지구 등 4개 지구로 나뉘 추진되고 있는데, 그나마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삼포지

구마저 투자자 원할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전남도는 “협약을 했던 중국 중대 건설그룹의 최소 투자금 입금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서 중국 자본 유치는 결국 무산됐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전남도와 개발공사 등은 최근 중국 측 관계자를 만나 자본 유치가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애초 중대건설그룹은 지난 29

일까지 130억원의 초기 투자금을 입금하기로 했으나 이 돈을 최종 입금하지 않은 것이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해 9월 중국 중견 건설그룹인 중대건설과 2500억원 규모의 협약을 체결했다.

삼포지구 개발사업은 F1경주장을 포함해 이 일대(4.3km)에 차부품단지, 호텔, 공동주택 등 1만명이 상주하는 복합레저스포츠도시를 조성하는 것이다.

중국 기업이 투자를 취소함에 따라

전남도는 국내 투자자를 찾아야 하지만 이마저도 경기침체 등으로 힘들어졌다.

한편 J프로젝트 사업은 구성지구(2.96km)를 비롯한 삼호지구(8.66km), 삼포지구(4.3km), 부동지구(1.4km) 등 4곳을 개발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지난해 구성지구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실시계획을 승인받았고, 다른 지구는 법정 다분 등을 벌이고 있어 전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문화공예 클러스터 ‘강남 스타일’ 떴다

강진 청자-광주 남구 공예, 자치단체 연계사업 선정... 국비 17억 지원

강진군과 광주 남구가 공동으로 신청한 ‘강(康)남(南) 문화공예클러스터 연계 활성화’ 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역발전위원회가 추진하는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사업에 선정돼 16억90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지역의 상생·균형발전을 위한 자

자체 간 연계협력사업은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협력해 지역특화산업, 문화, 관광, 복지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강-남 문화공예클러스터 연계 활성화 사업’은 총 사업비 18억7800만원을 투입해 강진군과 광주 남구의 특화산업인 청자문화산업과 빛고을

공예창작촌을 중심으로 특화산업 육성, 연계협력 네트워크, 비즈니스 모델 구축, 마케팅, 사업화 지원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다.

청자를 중심으로 융복합형 상품과 디자인 개발지원, 공동 마케팅을 홍보물 제작, 청자장인 신기술 역량 강화 교육과 연수프로그램도 시행

한다.

서울 등 대도시권에 공동 전시판매장을 구축하고, 국내외 박람회와 축제 참가 등 공동 마케팅 추진으로 두 지역 특화사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진원 강진군은 “이번 사업 선정은 계기로 두 지역의 특화사업을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강-남 체험형 관광상품과 코스도 개발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강-남발 진흥위원회’와 ‘강-남포럼’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남평기자 chou@

고흥거금대교·목포대교 ‘최우수 교량’

대한토목학회 ‘올해의 토목구조물’ 공모전서 대상·금상

고흥 거금대교와 목포대교가 지난해 우리나라 최고의 토목구조물로 인정받았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구자명)은 지난 29일 대한토목학회가 토목구조물 건설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한 ‘올해의 토목구조물’ 공모전에서 거금대교가 대상을, 목포대교가 금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내 해상교량 가운데 최초로 자전거·보행자·도로(1층)와 차도(2층)가 구분된 복층교량 거금대교는 고흥군 금산면 대흥리(거금도)와 도암읍 소록도(소록도)를 연결하는 다리로, 지난 2002년 12

월 착공, 2012년 4월 준공됐다.

목포대교는 목포시 죽교동 북항과 고흥도를 연결하는 해상교량으로, 지난 2004년 착공해 지난해 6월 개통했다.

국내 최초의 ‘삼면베치 케이블 공법’을 적용해 해상교량 기술의 신기원을 이뤘다는 평가와 함께 목포지역 교통여건 개선 및 뛰어난 야경으로 목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자리매김했다.

익산국토청은 지난해 무역대교(무안 일로-영암 확산)가 은상을 수상한데 이어 올해는 대상과 금상을 휩쓰는 쾌거를 올렸다. /임종철기자 exian@kwangju.co.kr

靑, 공정거래위원장 노대래 후보자 내정

청와대는 공정거래위원장에 노대래 전 방위사업청장을 내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난 31일 “노 전 방사청장이 공정위원장

청와대는 한만수 전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지난 25일 해외 비자금 계좌 의혹 등으로 자진 사퇴한 이후 후임자를 물색해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靑, 양건 감사원장 당분간 유임키로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도

양건 감사원장이 당분간 교체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난 31일 “양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당분간 인사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양 감사원장이 교체될지도 모른다는 분위기가 때문에 조직

이 흔들려 감사원 일이 안된다고 한다”며 유임 배경을 설명했다.

감사원장 임기는 헌법에 4년으로 보장돼있으며, 2011년 3월11일 임명된 양 감사원장의 임기는 현재 약 2년이 남았다. 이 관계자는 또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당분간 인사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주미대사 안호영
주중대사 권영세
주일대사 이병기



삼가 인사 드립니다.

지난 3월 22일 저희 아버지고 권진수 금수장관광호텔 회장의 상사시에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해 주시고 슬픔을 함께 나누어 주셔서 깊이 감사 드립니다. 아직 경황이 없어 우선 지면으로 인사드립니다. 해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2013년 4월 1일

- 미망인 김 이 은
- 자 권 대 식
- 녀 홍 식
- 소 라
- 자 부 김 진 원
- 전 희 영
- 사 위 정 대 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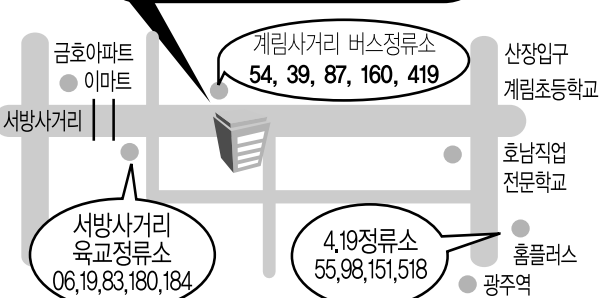
이전안내 광주한약도매시장(주) 정 산 한 약 방

한약 · 국산 · 수입한약재 한방에 대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독활(땅두릅)모목 분양

이전약도

광주한약도매시장(주)
정 산 한 약 방
광주결혼문화원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553-14
062)223-3399 / 223-66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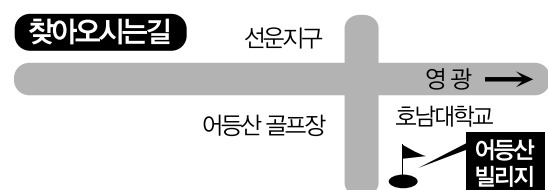
선암동 전원 주택용지 분양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11가구)
분양가격 전용면적 평당 130만원
각 필지 면적 약90평~280평(분할 · 합병가능)
현 토목공사 80%진행중

단지설명 지속적인 힐링 주거단지

1. 분양면적은 전체가 쓸 수 있는 전용면적입니다.
2. 각 필지별 상 · 하수도관 연결공사 완료
3. 각 필지별 건축허가 완료(각종세금 납부완료)
4. 각 필지별 6m도로 접



도심속 친환경 명품주거타운

선운공인중개사 010-5166-0013
062)952-5577

망치로 부셔먹는 독일전통과자

Schnee Pang(슈니팡)
& 버블팡(버블음료)

3호점 슈니팡&버블팡 메기박스 광주점
4월 5일(금) 14시

파레스 호텔, 민속촌, (구)련덕약국사거리, 메기박스 개업기념 슈니팡 3개 구매시 영화권(2장) 버블음료 1잔 무료증정, 무진주

4호점 순천 연합점 4월 20일(토) 14시

5호점 광주 전남대점 4월 26일, 6호점 전남 함평점 4월 26일, 7호점 광주 문흥점 4월 26일, 8호점 광주 봉선점 4월 26일, 9호점 광주 상무점 5월 3일, 10호점 광주 수원점 5월 3일

줄을 서서 사먹는 슈니팡&버블팡
광주 · 전남 가맹점 모집
062)523-1001, 010-5603-4709